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유형 연구

유철선¹, 최유경^{2*}

¹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²혜천유치원

A study on happiness type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hill-sun Ryu¹, Yu-Kyeong Choi^{2*}

¹Dep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²Hyecheon Kindergarten

요약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행복의 유형별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D지역의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어머니 32명을 임의 표집하였으며, 행복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을 심층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Q-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구조적 유형은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가족중심형,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을 느끼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감사추구형, 가족 및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중요한 행복의 가치를 두는 관계지향형, 가정의 화목이나 자녀교육을 통한 행복도 중요하지만 개인으로서의 삶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개인향유형의 4개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4가지 행복 유형 간 공통 견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족과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개인의 가치 관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types of happiness that mothers with young children feel by presenting the features of each happiness type, to eventually increase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2 mothers with young children in D city. They were randomly chosen. Q-methodology, which allow in-depth measurement of people's subjective perception of happiness, was employed in this research. The results and further analysis revealed 4 structural types of happiness: 1) family centered type, feeling happiness through family including children 2) gratitude pursuing type, feeling grateful to circumstances and small things happening in current life 3) relationship oriented type, emphasizing good relationship with family and others; and 4) personal enjoying type, emphasizing the satisfaction and joy in one's own life.

Keywords : happiness, mothers with young children, q-methodology, subjectivity research, mother's happi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행복은 문화, 시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국립국어원[1]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제시하였다. 최현석[2]은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이라

고 하였고, Kwarck[3]는 주관적인 것으로 개인의 긍정적 측면을 반영하며 개인의 경험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행복은 객관적인 상황 보다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른 마음상태 또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하는가에 달라질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행복은 어머니 개인뿐만 아니라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이

*Corresponding Author : Yu-Kyeong Choi(Hyecheon Kindergarten)

Tel: +82-42-582-6767 email: kind@dst.ac.kr

Received October 11, 2018

Accepted February 1, 2019

Revised (1st November 26, 2018, 2nd December 3,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9

라고 보았듯이[4], 행복은 자녀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방식과 가족 문화 등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행복이 자녀와 밀접한 상관이 있으므로 어머니가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며 생활하는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서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녀와 효율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자녀의 성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5][6]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녀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혼돈과 갈등을 끊임없이 경험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7][8]. 따라서 이 시기의 어머니들이 자신과 자녀의 욕구 간에 균형을 이루어 자신의 삶과 자녀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여 자녀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Brooks[9]와 이신영, 유철선[10]은 어머니들에게 자기계발이나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며, 정계숙[11]은 대인관계를 통한 정신적 조연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 조건 및 영향요인에 대한 국내외 연구를 살펴보면 학력이나 연령 등의 외적 요인들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12][13], 부모와 자녀관계, 대인관계 등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14][15], 자아존중감과 자율성 등이 행복에 중요한 영향[16][17][18]에 대한 결과들은 양적분석에 의한 연구들로 어머니의 행복에 어떤 외적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 자체보다는 자녀의 발달과 가족의 행복감 증진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행복에 대한 연구는 어머니가 느끼는 주관적인 개인의 행복을 다루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복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모부터 이해하는 방법에 따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어머니에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미를 질적으로 탐색하여 어머니의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치원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인식하는 행복의 구조적 유형을 분석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 향상 전략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의 구조적 유형은 어떠한가?
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행복은 주관적이고 개념화하기 어려우므로 탐색적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내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가 요구되므로 Q-방법론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소재한 공립유치원 2곳, 대학교 부속유치원 2곳, 사립유치원 5곳에 재원중인 유아의 어머니들로, 공립유치원 어머니 5명, 대학교부속유치원 어머니 16명, 사립유치원 어머니 11명 총 32명을 임의표집하였다. 배경특성은 Table 1과 같다

2.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Q-모집단 구성, Q-표본의 선정,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 작성, Q-분류 과정, Q-자료처리 및 분석의 과정을 거쳐 연구가 진행되었다.

2.2.1 Q-모집단 구성

관련문헌과 선행연구, 개방형의 질문을 통한 면담 및 서면조사,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및 서면 조사의 대상자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와 아버지 16명, 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어머니와 아버지 14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 5명, 유아교육학 시간강사 및 겸임교수 3명, 부모·아동상담센터 원장 및 상담사 3명,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10명을 선정하여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하다고 느끼는지, 행복하려면 어떤 요인들이 필요한지 등을 심층적으로 면담하여 총 134개의 Q - 모집단을 구성하였다.

2.2.2 Q-표본의 선정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관련문헌, 선행연구와 설문지

에서 추출된 진술문 134개를 나열하고 유목화 하였다. 여러번 반복하여 읽으며 중복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9개 영역, 57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된 2차 표본을 추출하였다. Q진술문 문항이 많아질 수록 응답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5], 유아교육과 교수 3인으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받아 진술문의 수를 35개로 최종 선정하였다.

2.2.3 Q-카드와 Q-표본의 분포도 작성

Q - 카드는 표본으로 선정된 35개의 진술문들을 2 x 3cm로 카드화하였고 자신의 의견의 중요도에 따라 9점 척도로 분류하는 Q - 표본의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2.2.4 Q-분류 과정

Q - 표본의 분포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따른 중요도에 따라 강한 긍정부터 강한 부정까지 9점 척도 상에 분류하여 정규분포에 가깝도록 강제 분포시키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분류하였다[19]. 또한 양극단에 분류된 진술문에 대한 선택이유를 질문하여 메모하거나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하였던 것을 풀어서 기록하였다.

2.2.5 Q-자료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의 코딩은 Q - 표본 분포도에 따라 가장 반대하는 경우 -4를 1점을 부여하고 순차적으로 2점(-3), 3점(-2), 4점(-1), 중립인 경우는 5점, 6점(+1), 7점

Table 1. Damographic characteristics (N=32)

Type	No	Eigen value	Sex of the child	Age of the child	number of the child	Age of the mother	Educational status of the mother	Employment status of the mother	Satisfaction the income
I	1	2.3654	girl	3yrs	one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normal
	2	2.2935	girl	3yrs	one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normal
	3	1.4708	girl	3yrs	two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4	1.1274	boy	4yrs	two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5	1.0334	boy	4yrs	two	over 40	above college	none employment	satisfaction
	6	.9658	girl	5yrs	three	over 40	college	none employment	normal
	7	.8942	girl	3yrs	one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normal
	8	.7184	girl	3yrs	one	36~40	college	etc	unsatisfaction
	9	.6980	girl	4yrs	two	31~35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10	.6689	girl	5yrs	one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normal
	11	.6420	boy	5yrs	two	36~40	college	etc.	unsatisfaction
	12	.6094	girl	5yrs	one	36~40	college	part time	normal
	13	.5729	girl	4yrs	one	36~40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II	1	1.8468	girl	4yrs	one	over 40	college	employment	normal
	2	1.5491	girl	5yrs	one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3	1.1269	girl	5yrs	one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4	1.0171	boy	4yrs	one	over 40	college	employment	normal
	5	.7873	girl	5yrs	two	over 40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6	.6729	girl	3yrs	one	over 40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7	.5284	girl	4 + 5yrs	two	over 40	above college	none employment	satisfaction
	8	.4333	boy	5yrs	three	over 40	college	part time	satisfaction
III	1	2.3844	boy	3yrs	two	36~40	college	employment	unsatisfaction
	2	2.1351	boy	3 + 5yrs	two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very satisfaction
	3	1.5685	boy	4yrs	one	36~40	college	employment	normal
	4	1.4059	girl	3yrs	two	36~40	college	employment	normal
	5	1.0192	girl	3yrs	two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normal
	6	.9809	girl	4yrs	two	31~35	college	employment	normal
	7	.9105	boy	5yrs	two	36~40	college	employment	normal
IV	1	1.1076	boy	3yrs	two	36~40	college	none employment	unsatisfaction
	2	1.0190	boy	3 + 4yrs	two	36~40	college	employment	satisfaction
	3	.7497	girl	3yrs	two	31~35	college	employment	normal
	4	.7477	girl	3yrs	two	36~40	above college	employment	normal

(+2), 8점(+3), 9점(+4)으로 점수화하였다. 자료분석은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Q요인 분석은 직각회전(Varimax Rotation)을 시킨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하였다. 각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른 문항별 표준점수(Z-score)를 분석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을 기술하였다.

3. 연구결과

3.1 Q 유형의 형성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Q-요인 분석한 결과 4개의 유형으로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4개의 유형은 전체 변량의 58.3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 별 설명력을 보면 제 1유형(13명)이 36.93%, 제 2유형(8명)이 8.64%, 제 3유형(7명)이 7.43%, 제 4유형(4명)이 5.36 %였다. 제 1유형이 36.93%의 설명력을 가지므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구조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able 2. Eigenvalue, Percentages of Variance

	Type1	Type2	Type3	Type4
Eigenvalue	11.81	2.76	2.37	1.72
Percentage	.3693	.0864	.0743	.0536
Cumulative	.3693	.4557	.5300	.5836

유형간의 상관계수는 Table 3과 같이 각 유형 간의 유사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제 1유형과 제 2유형의 상관계수는 .490이며, 제 1유형과 제 3유형은 .589,

제 1유형과 제 4유형은 .573, 제 2유형과 제 3유형은 .387, 제 2유형과 제 4유형은 .341, 제 3유형과 제 4유형은 .416으로 상관계수가 나타나 각 유형의 상관계수는 보통으로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으로 제 1유형의 큰 축을 중심으로 제 3유형, 제 4유형, 2유형이 근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1	Type2	Type3	Type4
Type 1	1.000			
Type 2	.490	1.000		
Type 3	.589	.387	1.000	
Type 4	.573	.341	.416	1.000

3.2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유형별 분석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유형별로 분석, 기술하기 위해 각 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강한 긍정적·부정적 동의를 기초로 각 문항의 표준점수 및 다른 유형과의 표준점수 차이에 근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가족중심형, 현재 주어진 상황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는 감사추구형,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행복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관계지향형, 개인으로서의 삶과 즐거움을 강조하는 개인향유형으로 명명하였다.

3.2.1 제1유형: 가족중심형

제 1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모두 13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1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Descriptions in type 1 that suffices Z≥±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28	My children themselves are sources of happiness to me.	1.75
27	Happiness is chattering and enjoying a meal with my family.	1.55
19	I am happy when I see my beloved husband and children every moment.	1.50
35	I am happy when my family live well with a bright smile.	1.42
3	I am happy when my children say "I love you" to me.	1.34
8	I am happy when I watch my children grow up happily.	1.31
2	Happiness is achieved when the family is always happy and peaceful.	1.19
29	Happiness is respecting and acknowledging other people's opinions.	-1.22
12	Happiness is abandoning my obsession to something.	-1.29
13	I am happy when everything around me seems beautiful.	-1.42
32	Happiness is a journey away from everyday life with the person I love.	-1.48
31	I am happy when the love of God is felt in religion.	-2.18

Table 5. Descriptions in type 2 that suffices $Z \geq \pm 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35	I am happy when my family live well with a bright smile.	2.04
31	I am happy when the love of God is felt in religion.	1.68
8	I am happy when I watch my children grow up happily.	1.63
23	I am grateful when I think about my life so far.	1.37
17	Happiness is being grateful to the circumstances and small things happening to me.	1.07
12	Happiness is abandoning my obsession to something.	-1.10
10	Happiness is speaking "I love you" to someone I love without any hesitation.	-1.14
16	Happiness is helping people around me who are in difficult circumstances.	-1.53
32	Happiness is a journey away from everyday life with the person I love.	-1.56
25	Happiness is gratefully thinking about what to do today and what to do tomorrow.	-2.09

제 1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행복은 내 자녀 자체이다’라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행복하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맛있게 식사하는 것, 우리 가족이 함께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이 ‘엄마! 사랑해’라고 말할 때, 내 자녀가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한 것 등에 대해 강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곳으로 여행갈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등에 대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1유형은 자녀 자체가 행복이고,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맛있게 식사하며, 자녀들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녀가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한편 행복이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

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족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점에서 가족중심형 이라고 본다.

3.2.2 제2유형: 감사추구형

제 2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모두 8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2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강조한 진술문($Z = \pm 1.00$ 이상)은 Table 5와 같다.

제 2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우리 가족이 함께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오늘은 무슨 일을 할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즐겁게 고민하는 것이 행복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내 자녀가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을 생각하면 감사의 마음이 크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Table 6. Descriptions in type 3 that suffices $Z \geq \pm 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8	I am happy when I watch my children grow up happily.	1.74
2	Happiness is achieved when the family is always happy and peaceful.	1.68
15	I am happy to see my children getting along with each other.	1.68
30	Happiness is having a kindergarten where I can trust my children.	1.45
20	Happiness is becoming a good parent to my children.	1.07
34	I am happy when I chatter with nice people around me, drinking a cup of warm tea.	1.05
23	I am grateful when I think about my life so far.	-1.03
16	Happiness is helping people around me who are in difficult circumstances.	-1.09
24	I try to develop myself.	-1.46
7	We are not necessarily happy when we have a lot of money, but happiness depends on how positively you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1.48
31	I am happy when the love of God is felt in religion.	-1.54

등에 대해 강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 주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스스럼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주변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2유형은 행복은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는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삶에 대해 감사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으므로 감사추구형이라고 본다.

3.2.3 제3유형: 관계지향형

제 3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모두 7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3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Table 6과 같다.

제 3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웃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행복하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한 것, 자녀들이 서로 아껴주며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있는 것,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 좋은 사람들과 따뜻한 차 한잔을 하며 대화할 때 등에 대해 강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을 느낄 때, 지금까지 지내 온 삶에 대한 감사, 주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등에 대해 강한 부정의 견해를 나타냈다.

따라서 제 3유형은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하며 자녀가 성장할 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좋은 관계를 통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이 있는 것과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주는 것, 자녀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좋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등 관계에 행복의 중요한 가치를 두는 특징이 있으므로 관계지향형이라고 본다.

3.2.4 제4유형: 개인향유형

제 4유형으로 분류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모두 4명으로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제 4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강조한 진술문($Z=±1.00$ 이상)은 Table 7과 같다.

제 4유형에 속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내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이 행복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행복이다’는 진술문에 가장 부정적인 동의를 나타냈다. 또한 여유있고 편안함(내 마음의 평화)이 느껴질 때 드는 기분이 행복이며, 자녀를 잘 키우는 것 못 지않게 내 삶도 중요하다는 것에 강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행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기다려주는 것,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제 4유형은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인정해주고, 배려하며 기다려주는 것보다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돈이 많은 것보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며,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으로서의 삶과 즐거움을 강조하므로

Table 7. Descriptions in type 4 that suffices $Z \geq ±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11	Happiness is the satisfaction and joy to my life.	2.16
26	Happiness is feeling relaxed and peaceful.	1.65
7	We are not necessarily happy when we have a lot of money, but happiness depends on how positively you think about the current situation.	1.58
2	Happiness is achieved when the family is always happy and peaceful.	1.27
18	My own life is as important as raising my children well.	1.09
29	Happiness is respecting and acknowledging other people's opinions.	-1.23
12	Happiness is abandoning my obsession to something.	-1.64
31	I am happy when the love of God is felt in religion.	-1.69
4	Happiness is waiting with consideration for others.	-1.78

Table 8. Common views among several types that suffices $Z \geq \pm 1.00$

Item number	Item Descriptions	Z score
35	I am happy when my family live well with a bright smile.	1.64
2	Happiness is achieved when the family is always happy and peaceful.	1.26
29	Happiness is respecting and acknowledging other people's opinions.	-1.06
16	Happiness is helping people around me who are in difficult circumstances.	-1.32

개인향유형이라고 본다.

3.2.5 유형 간 공통견해

4가지 유형의 어머니들이 강조한 진술문($Z = \pm 1.00$ 이상)은 Table 8과 같다. 35명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가정이 늘 화목하고 평안한 것에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복은 주변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의 공통 견해를 나타낸 바와 같이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는 가족중심의 생활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지각하는 행복의 구조적 유형은 가족중심형, 감사추구형, 관계지향형, 개인향유형의 4개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중심형의 어머니들은 자녀 자체가 행복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이 기쁘고 가족이 늘 밝게 웃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므로 가족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낀다. 이처럼 가족은 어머니의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 행복감 척도의 제 1요인은 ‘가족관계’로 자녀와 배우자, 친지 등과의 지지적이고 원만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연구한 정계숙 외[12] 연구와 어머니의 행복과 관련하여 ‘자녀’가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분석한 황혜익 외[2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어머니들은 부모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조건으로 자녀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한 연구[4]와 여성의 행복은 자녀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핵심[26]이라고 분석된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자녀 변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며, 부모의 행복한 삶의 행동이나 가치가 자녀에게로 전이되어 부모-자녀 간 행복은 정적 상관 이 있다는 연구[6][22]를 뒷받침한다. 이 시기의 어머니들은 자녀 및 가족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행복을 느낀다. 김의철 외[23]는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부모는 가정의 화목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여겼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늘날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은 선택사항이며, 갈등과 좌절 육아[7][8]를 경험한다는 것과 상반된 맥락이다.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이 다른 연령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11]를 보았을 때, 자녀의 수 감소라는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워 보겠다는 신념[24]이 나타난 것으로 본다. 여성들의 삶에 있어서 결혼과 육아는 힘든 과제이지만, 가정을 구성하며 살아가다보면 가족으로 인해 힘을 얻고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예비 부모를 위해 가족관계, 자녀양육 등에 대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감사추구형의 어머니들은 종교에 의지하여 절대자의 사랑이 몸소 느껴질 때 감사를 느끼며,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이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감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에서 의미를 발견하여 삶을 보다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게 하는 요소로[25], 주관적 안녕감과 높은 상관을 갖고 있다는 연구결과[26]와 일치한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감사 성향이 양육스트레스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중요하고 또한 부모의 감사 성향이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27]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주어진 삶에 감사하는 부모의 행복이 자녀와 가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감사가 행복감 증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오윤선의 연구[28]에 의해서 지지된다.

또한 어머니들은 종교에 의해 행복이 높아진다는 결과[5][7][20]와 여러 종교 중 기독교 어머니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10]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종교에 의지하며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관계지향형의 어머니들은 가정 뿐만 아니라 가족이 관계를 맺는 유아교육기관과 내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 행복은 자기실현을 통한 명예나 성취보다도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주장한 연구[23][29]와 좋은 인간관계는 행복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인[30]이라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이신영, 유철선[10]이 연구한 유아 어머니는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통한 행복감이 가장 높다는 결과와 이신영, 유철선[15]이 제시한 어머니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맺기를 행복한 생활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는 유아 어머니들이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보 및 양육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역커뮤니티 내에 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육아맘 간의 정신적 조연과 사회적 지원이 요구된다.

긍정적인 대인관계가 행복한 삶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요소이며[5][20][31], 행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 사람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만족감과 뿌듯함을 경험하는 것처럼[31], 본 연구에서도 유아 어머니의 행복을 위하여 긍정적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개인향유형의 어머니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고, 여유있고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 이는 유아 어머니는 자율성과 개인성장을 통한 행복감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는 연구[10]와 대부분의 시간을 자녀를 돌보는 일과 가사로 보내는 유아 어머니에게 개인 여가활동이나 자기 계발이 행복이라고 인식한 연구[9]와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유아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는 일과 가사로 인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유롭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기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어머니의 행복을 지각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의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4가지 행복 유형 간 공통 견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가족과 친밀한 사람과의 관계, 개인의 가치 관계가 두드러지게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나타난 이유는 어머니는 일생 중 유아기 자녀와 가장 밀접하게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하는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다는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어머니의 행복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나, 어머니가 행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복에 대한 접근을 확장하며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D광역시에 소재한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어머니의 거주지역에 따라 다소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대상의 표집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모집단을 표집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행복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삶속에서 행복을 지속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각 유형별로 유아 어머니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직접적으로 행복 영향 요인에 대한 질적 탐색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korean standard unabridged dictionary. <https://www.korean.go.kr> (accessed Aug., 7, 2018).
- [2] H. S. Choi, All human emotion. Booksee, 2011.
- [3] H. K. Kw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Self-Identity and Teacher's Efficacy Belief, Teacher-Young Children Interac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1.
- [4] K. S. Chung, M. S. Yoo, S. H. Park, E. S. Choi,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across the Life-Cycles of Thei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3, No.4 pp 69-89, 2012.
- [5] S. H. Kim, H. I. Hwang, "A Study on Perceptions by

- Mothers with Young Children about Flourishing”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19, No.3 pp 219-242, 2015.
- [6] S. H. Kim, S. H. Hong, “A study on the strengths of mother with younger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1, No.4 pp 345-371, 2016.
- [7] E. S. Choi, K, S, Chung, “The effects of mothers' demographic, psychological, and relational factors on the happiness of mothers with young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7, No.5 pp 143-163, 2012.
- [8] E. A. Choi, The process of meaning construction on children's happiness by mother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s thesis, Univ. of Pusan, Korea, 2014.
- [9] Brooks, Parenting(3rd ed.), McGraw-Hill Humanities/Social Sciences/Langua, 2000.
- [10] S. Y. Lee, C. S. Ryu, “A Comparison study on happiness of preschooler (3-5yrs) mothers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6-7yrs) mot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5 pp 495-508, 2018.
- [11] K. S. Chung. “Happiness Perceptions of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Focus on Past and Present Happiness, Conditions of Happiness and Happiness Discrepancie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Vol.23, No.3 pp 105-125, 2014.
- [12] K. S. Chung, S. H. Park, M. S. Yoo, E. S. Choi, “The Variables Related to Maternal Happiness for Mothers of Young Children, School-Aged Children, and Adolescents : A Child's Age, the Numbers of Children, and Maternal Perceptions of the Conditions of happines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34, No.4 pp 105-123, 2013.
- [13] W. C. Chen, How education enhances happiness: Comparison of mediating factors in four East Asian countr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06, pp 117-131, 2012.
- [14] J. H. Yoo, J. S. Kim. “The Effects of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on Parenting Behaviors and Happiness of Moth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10, No.1 pp 51-65, 2018.
- [15] S. Y. Lee, C. S. Ryu, “A Study on the happiness of the Korean mothers and Japanese mothers” *Korean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15, No.3 pp 303-321, 2016.
- [16] J. L. Kim,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s Feeling of Happiness, Mother's Feeling of Happiness, Parenting Behaviors, and the Elements of Familial Environment”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Vol.109, pp 53-77, 2018.
- [17] K. H. Cho, M. H. Do, “The Effects of Mothers' Happiness and Parenting Stress on Young Children's Self-esteem -The Mediating Role of Parenting Efficacy”,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1, No.4 pp 725-744, 2016.
- [18] A. R. Choi, Y. S.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Life Stress of Children in response to the 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Mother and the Happiness of Elementary school Child”,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6, No.1 pp 337-351, 2015.
- [19] H. K. Kim. “Q-methodology”, Communication Books, 2008.
- [20] H. I. Hwang, S. H. Kim, K. H. Lee, “A Network Analysis of Mothers' Happiness Concepts based on Big Data”,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25, No.2 pp 45-66, 2018.
- [21] K. Ryu, J. L. Rie, “Factors of Happy Life among Korean Women”,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24, No.2 pp 89-104, 2010.
- [22] B. Headey, R. Muffels, G. G. Wagner, “Parent Transmit Happiness along with Associated Values and Behaviors to their Children: a Lifelong Happiness Dividend?”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11 No.6, pp 909-933, 2014.
- [23] U. C. Kim, Y. S. Park, S. Y. Park, “Factors that influence happiness and unhappiness among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The journal of research for human development*, Vol.19, No.2 pp 197-225, 2012.
- [24] O. K. Lee, The effect of fine parenting training program on parent's locus of control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 of Catholic Korea, 2004.
- [25] S. M. Kwon, Positive psychology, Hakjisa, 2008.
- [26] J. H. Noh, M. G. Lee, “Gratitude, appreciation,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trait, positive emotion, reliability, validation”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31, No.1 pp 329-354, 2012.
- [27] S. Li, “Chinese parents' role modeling: promoting gratitude”, *Childhood Education*, Vol.91, No.3 pp 190-197, 2015.
- [28] Y. S. Oh, “The Effect of Gratitude on the Adolescents' Happiness”, *Gospel and counseling*, Vol.18, pp 237-263, 2012.
- [29] G. E. Vaillant, Aging well: Surprising guideposts to a happier life from landmark. Harvard study. Boston, MA: Little-Brown, 2002.
- [30] B. H. Seong, S. A. Yoon, “Definition of Happiness and Its Determinants”, *Journal of Brain Education*, Vol.6, pp 103-134, 2010.
- [31] J. E. A. Russell, “Promoting Subjective Well-being at Work”,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41, pp 177-187, 2008.

유 칠 선(Chill-sun Ryu)

[정회원]



- 198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1993년 8월 :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문학박사)
- 1991년 3월 ~ 현재: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사교육, 과학교육, 부모교육

최 유 경(Yu-Kyeong Choi)

[정회원]



- 2011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학과(문학석사)
- 2016년 2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문학박사)
- 2002년 3월 ~ 현재 : 혜천유치원 원감

<관심분야>

인성교육, 생태교육, 유아교사교육